

포트로알 논리학에 있어서의 계사의 기능

송 하 석 (아주대)

【요약문】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부터 프레게와 러셀의 현대논리학이 등장하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논리학의 저서는 “포트로알 논리학”이라고 알려진 『논리학 혹은 사유의 기술』이다. 이 저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중세의 고전논리학적 요소와 프레게의 현대논리학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 고전논리학과 현대논리학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포트로알 논리학에 나타난 서술문의 계사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대립되는 해석들을 살펴보고 포트로알 논리학전체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해석이 보다 설득력있는 해석인가를 검토해 봄으로써 포트로알 논리학이 지닌 고전적 요소와 현대적 요소를 대비해 보는 것이다. 즉 포트로알 논리학의 서술문의 계사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그 저서의 한계와 의미를 알아보고, 논리학사에서 그 저서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서술문의 계사에 대한 포트로알 논리학의 설명은 계사는 주어와 술어 사이의 동일성 기호라는 고전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동시에 서술문의 계사는 술어의 속성들의 집합(comprehension)에 속한 성질들을 주어의 외연(extension)에 적용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프레게의 개념과 대상에 대한 설명과 유사함도 보이고 있다. 필자는 포트로알 논리학의 계사에 대한 설명을 주어와 술어의 동일성 기호로 해석하는 최근의 빠리앙뜨의 주장(1978)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포트로알 논리학의 계사에 대한 설명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술어의 속성과 주어의 외연 사이의 서술적 기능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계사를 동일성 기호로 해석하는 것은 첫째 포트로알 논리학 전체를 살펴볼 때 빈약한 문헌적 증거밖에 갖지 못하고, 둘째 논리학과 의미론에서 포트로알 논리학의 가장 중요한 기여라고 평가되는 속성집합과 외연의 구별에 대한 오해를 포함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해석은 같은 술어도 주어가 달라짐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주장을 포함함으로써 반직관적이다. 반면에 계사를 서술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포트로알 논리학의 외연과 내포 사이의 구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에 근거한 것이고 종속질을 갖고 있는 명제에 대한 포트로알 논리학의 분석에 의해서도 뒷받침됨을 보인다. 그러나 포트로알 논리학은 주어의 외연이 공집합인 명제에 대한 분석에서 여전히 고전논리학적인 설명을 고수한다. 즉 그러한 명제에 대해 주어의 외연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존재적 관점의 해석만 허락함으로써 전칭명제를 조건적으로 해석하고 $(\forall x)(Sx \rightarrow Px)$, 특칭명제를 연언적으로 해석함으로써 $(\exists x)(Sx \ \& \ Px)$, 그 문제를 해결하는 현대논리학과는 구별된다. 즉 포트로알 논리학은 서술문의 계사를 동일성 기호가 아니라 주어와 술어의 외연과 내포사이의 서술적 기능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고전적인 견해와 구별되지만, 여전히 존재적 관점에서 모든 명제를 해석한다는 점에서 고전적이다. 이것이 바로 포트로알 논리학의 평가를 위해서 주목해야 할 그 논리학의 가치이며 한계인 것이다.

I. 머리말

현대논리학은 프레게에 의해서 요소명제에 대한 전통논리학의 설명이 거부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논리학에 따르면, 요소명제는 계사(copula)에 의해서 결합된 주어와 술어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이나 ‘죽는다(mortal)’와 같은 일반명사(general terms)는 개별자나 그 명사가 서술하는 개별자들의 이름이다. 전통논리학은 주어와 술어를 모두 개별자나 개별자 집합의 이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계사를 그 용어 사이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기호로 간주한다. 예컨대 “소크라테스는 회랍의 한 철학자이다(Socrates is a Greek philosopher)”에서 계사 ‘-이다(is)’는 ‘소크라테스’와 ‘회랍의 한 철학자’를 동일시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프레게는 함수(function)와 논항(argument)을 구별하면서 ‘소크라테스’와 같은 대상의 이름(name of object)과 ‘-는 회랍의 한 철학자이다’와 같은 개념의 이름(name of concept)을 구별한다. 그러나 프레게는 “개념과 대상에 대해서”라는 논문에서 “사유의 모든 부분이 다 완전할 수 없다. 적어도 하나는 불완전해야(unsaturated)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은 서로 결합될 수 없을 것이다”¹⁾고 말하여 명제의 구성을 위하여 이와 같은 완전한 표현인 대상의 이름과 불완전한 표현인 개념의 이름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결국 프레게에 따르면, 술어는 개별자를 이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자에 대해서 참인 개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포르트로알 논리학이라고 보다 잘 알려진 『논리학, 혹은 사유의 기술 *La Logique ou l'art de penser*』²⁾이라는 저서에서 저자들(A. Arnauld와 P. Nicole)은 데카르트의 관념에 대한 설명에 기초한 의미론의 영향을 받아 정언명제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다. 정언명제에 대한 포르트로알 논리학의 설명은 모든 요소명제를 주어-계사-술어로 분석하고 단칭명제는 일반명제를 구성한다고 보는 점에서 전통논학과 동일하다. 또 데카르트의 영향으로 전개된 포르트로알의 의미론은 서술문에 대한 프레게의 설명과 유사한 사유체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포르트로알 논리학의 위치를 논리학사에서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 포르트로알 논리학에 담긴 다양하고 심지어 일관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긴장을 어떻게

1) G. Frege, “On Concept and Objects” *Translations from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Gottlob Frege*, eds. P. Geach & M. Black (Oxford: Basil Blackwell, 1966), 54쪽.

2) 앞으로 이 책은 Logic으로 표기하고, 이 책의 인용은 다음 영어 번역본의 페이지이다. *The Art of Thinking* Trans. J. Dickoff & P. James (Indianapolis: Bobbs-Merrill, 1964).

해석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포트로알 논리학에 나타난 서술문(predication)의 계사의 역할을 살펴 봄으로써 포트로알 논리학의 명제에 대한 이론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검토해 볼 것이다. 특히 필자는 최근에 빠리앙뜨에 의해서 제기된 판단(judgment)에 대한 전통적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포트로알 논리학이 주장하는 판단(judgment)과 생각(conception)의 구별에 주목하면서 포트로알 논리학의 명제에 대한 이론이 현대 논리학, 특히 프레게의 이론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통논리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II. 포트로알 논리학에 있어서의 관념과 판단

일찌기 데카르트는 과학적 지식은 먼저 생각함(conceiving), 판단함(judging), 추론함(reasoning), 그리고 배열함(ordering)이라는 네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단계는 각각 이전 단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의 발생은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생각함은 관념을 단순히 품는 것, 즉 단순히 관념을 이해하는 것(apprehension)으로서 다른 단계에 비해 가장 간단한 정신적 작용이다. 판단함은 이미 이해된 두 개 이상의 관념이 결합되어 그 중의 하나를 긍정하거나 부정할 때 발생하는 것이고, 추론함은 하나 이상의 판단(judgments)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른 판단을 구성할 때 발생한다. 끝으로 판단과 추론을 적절한 방법으로 배열할 때 우리는 비로서 과학적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설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관념을 품음”이라고 설명되는 **생각함**이 **판단함**에 앞선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관념은 하나의 판단 내에서의 역할과 관계없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과 우리는 판단함 없이 관념에 대한 정신작용을 가질 수 있음을 함축한다. 그리고 지식과 의미의 기본적인 단위는 관념인 것이다. 그러나 생각함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개념과 명제, 명제와 판단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데카르트는 분명하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복합관념이 명제적 내용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제 5 성찰에서 직각삼각형의 관념을 이해하는 것은 “빛변의 제곱은 다른 두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것과 “빛변은 가장 큰 각과 마주한다”는 것을 이해함을 함축한다고 말한다.³⁾ 그리고 여러 곳에서 데카르트는 생득적인 일반 관념을 나열하는데

3) R. Descartes, *Meditations on First Philosophy*. 데카르트의 인용은 다음 책에서 이루어졌다. *The*

예컨대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든가 “동일한 것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어떤 관념을 이해할 때 갖는 관념이 복합관념일지라도 단순히 생각함, 즉 그 관념을 품는 단계에서 우리의 정신작용은 수동적이라고 주장한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의 정신작용은 수동적이지만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정신작용이 단순히 수동적 이해가 아니고 의지의 능동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개념-명제-판단의 과정에서 분명한 구별이 가능한 곳은 개념과 명제 사이가 아니라 명제와 판단 사이이다.

포르트로알 논리학은 데카르트가 인식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네가지 정신작용인 생각함, 판단함, 추론함, 배열함이라는 네부분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포르트로알 논리학은 생각함과 판단함에 대한 데카르트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그들이 데카르트의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 데는 적어도 두가지 이유가 있어 보인다. 우선 포르트로알의 저자들은 수동적 이해와 능동적 판단의 구별은 정신적 실체(substance)의 단순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관념의 이해를 수동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들은 정신이 관념을 갖는 과정에서나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나 모두 능동적이라고 주장한다. 두번째 이유는 판단을 분석해 볼 때 단순히 명제를 갖는 것과 주장을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먼저 포르트로알 논리학의 저자들의 주장하는 관념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포르트로알 논리학의 저자들은 관념을 두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한다. 첫째는 관념의 대상에 따른 분류인데 이러한 분류는 관념을 실체의 관념(ideas of substance)과 양상 혹은 속성의 관념(ideas of modes or attributes)으로 나눈다. 둘째는 관념이 단일관념(singular ideas)인가 일반 또는 보편관념(general or universal ideas)인가에 의한 분류이다. 단일관념은 단 한개의 구체적인 개별자를 표상하고 흔히 고유명사나 한정기술구로 표현되고, 일반관념은 한 개 이상의 개별자들을 표상할 수 있고 흔히 보통명사나 형용사로 표현된다. 그리고 포르트로알 논리학은 일반명사의 내포(comprehension)와 외연(extension)을 구별한다.⁴⁾ 일반

Philosophical Writings of Descartes, Trans. J. Cottingham, R. Stoothoff, & D. Murdoch (Cambridge, 1985).

4) 여기서 필자가 내포로 번역한 말은 'intension'이 아니라 'comprehension'이다. 그러나 포르트로알에서 쓰인 'comprehension'이라는 단어는 본문에서도 나중에 그 설명이 나오겠지만 한 관념이 어떤 대상에 적용되기 위해서 그 관념이 지녀야 하는 속성 전체를 뜻하기 때문에, 'intension'과 같은 뜻이라고 보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는 'comprehension'을 흔히 'intension'의 번역어로 쓰이는 '내포'라는 말로 번역했다.

관념의 내포는 그 관념에 의해서 표상되는 속성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즉 “삼각형”이라는 관념은 그 내포로 “연장, 형태, 세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짐, 세각을 갖음, 내각의 합은 2직각임” 등을 포함한다. 반면에 그 관념의 외연은 그 관념이 적용되는 모든 대상, 또는 그 관념을 표현하는 일반명사가 올바르게 서술하는 모든 대상들이다.

내포와 외연의 관계에 대한 포트로알 논리학의 설명은 의미론의 역사에서 이 저서가 갖는 가장 큰 기여이며, 그 설명은 현대 이론과도 매우 유사해 보인다. 첫째, 관념에 본질적인 것은 외연이 아니라 내포이다. 그 이유를 포트로알의 논리학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관념의 파괴없이 그 관념의 성질 중 어느 것도 제거될 수 없다. 그러나 관념을 파괴하지 않고 그 관념이 적용되는 대상의 일부에만 그 관념을 적용함으로써 그 관념의 외연을 제한할 수 있다.”⁵⁾ 결국 관념의 내포가 그 외연을 지배하고, 일반관념의 외연을 결정하는 것은 그 관념의 내포, 즉 속성의 집합이다. 둘째, 내포와 외연은 서로 역으로(inversely) 관계한다. 즉 한 관념의 내포에 새로운 성질들이 부가되면 그 관념의 외연은 제한된다. 즉 A의 내포가 B의 내포를 포함하면 B의 외연은 A의 외연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 역도 또한 성립한다. 이제 이러한 포트로알 논리학의 관념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명제와 판단에 대한 설명과 관계하는가를 살펴보자.

포트로알의 논리학에 따르면, 요소명제는 두개의 관념이 결합하여 한 관념이 다른 관념에 대하여 긍정하거나 부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요소명제는 동일한 형태와 동일한 요소를 갖는다. 즉 모든 요소명제는 주어와 술어로 구성되고, 주어와 술어 사이의 긍정과 부정의 관계는 ‘-이다(be동사)’로 표현되는 계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모든 명제는 두 관념 사이의 긍정이나 부정이라는 하나의 주장을 담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모든 사유는 긍정이나 부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판단함이 없이 단순히 명제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포트로알 논리학은 명제와 판단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포트로알 논리학은 데카르트와 달리 “개념-명제-판단”의 과정에서 구별되는 곳은 개념과 명제(혹은 판단) 사이라고 주장한다.

포트로알 논리학은 정언명제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을 유지하면서, 정언명제를 양(quantity)과 질(quality)이라는 두가지 기준으로 구별한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명제의 양적인 구별-전칭(보편)명제, 특칭명제, 단칭명제-이다. 이 논리학은 전칭명제와 특칭명제는 주어-계사-술어로 구성되는 단칭명제와 달리 주어의 외

5) *Logic*, 59쪽.

연을 결정하는 양화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구별된다고 설명한다. 포트로알 논리학은 전통논리학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양화사는 하나의 사물이나 사물의 속성을 나타내고 명제에서 주어나 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주적 용어(categorematic terms)와 달리 합성범주적 용어(syncategorematic terms)라고 말한다. 한 명제에서 양화사는 그 양화사가 붙은 용어의 외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그 용어와 함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약간의(some)’라는 양화사는 그 양화사가 수식하는 일반명사의 외연의 일부분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미결정적인(indeterminate) 용어이다.⁶⁾ 따라서 양화사가 붙은 주어는 그 전체가 논리적으로 의미있는 한 단위이다. 그러므로 전체 긍정이나 부분 긍정의 완전한 주어는 “모든 S(All S)”나 “약간의 S(Some S)”이다. 그리고 포트로알 논리학은 전통논리학의 주연(distribution) 개념을 받아들여서 명제의 술어는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양화된다고 설명한다. 즉 긍정명제에서 술어는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긍정되어지는 것으로, 즉 부주연되는(undistributed)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계승자들처럼 포트로알의 저자들도 단칭명제에서 주어는 그 모든 외연에 대해서 언급되기 때문에, 즉 단칭명제의 주어는 주연되기 때문에 단칭명제는 보편명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결국 포트로알 논리학도 전통논리학처럼 모든 요소명제는 네가지의 정언적 형태 중의 하나임을 주장한 셈이다.

명제(판단 혹은 주장)와 복합관념을 구별하게 해주는 것은 계사의 존재이다. “철수”라는 단일관념과 “정직함”이라는 또 하나의 관념을 판단함이라는 정신작용 없이 그 둘을 연결하여 “정직한 철수”라는 복합관념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철수는 정직하다”는 판단을 할 때 우리는 “철수”라는 관념에 대해서 “정직함”이라는 관념을 긍정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계사의 기능은 생각함(conceiving)의 과정을 판단함(judging)의 과정으로 변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포트로알 논리학에서 계사는 하나의 명제에서 어떻게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가?

III. 동일성 기호로서 계사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통논리학은 요소명제의 계사를 주어와 술어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기호로 간주한다.⁷⁾ 빠리앙뜨를 비롯한 몇몇 논리학자들은 포트로

6) 위의 책, 115쪽.

알 논리학의 다음 구절을 근거로 포트로알의 계사에 대한 설명도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와 같다고 주장한다.

오직 우리가 주어에 대한 관념과 술어에 대한 관념이라는 두개의 관념을 사용하고 우리 정신이 그 둘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는 관계를 표시하는 다른 단어를 사용할 경우에만 우리가 하나의 명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 관계는 우리가 어떤 것이 다른 것과 같다고 말할 때, 긍정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단어에 의해서만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다. 이로부터 긍정의 본질은 주어와 술어의 결합(unite)이고 동일화(identify)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이 바로 ‘-이다(is)’에 의해서 의미되는 것이다.⁸⁾

어떤 것(A)이 다른 것(B)과 결합되지 않고 그 다른 것(B)이 전자(A)와 결합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A가 B와 결합된다면 B도 A와 결합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 결합이 상호적이지 아니라면 즉 우리가 이러한 두개의 결합된 용어들에 대한 상호 긍정을 할 수 없다면 (...) 모든 결합 중에서 가장 완전한 것은 동일화인데 두 대상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하다.⁹⁾

이어서 포트로알 논리학은 “약간의 사람은 정의롭다”는 명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약간의 사람이 약간의 정의로운 것과 동일하다면, 약간의 정의로운 것도 약간의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즉 이 명제의 계사는 주어와 술어 사이의 동일성 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¹⁰⁾

빠리앙뜨 자신도 이것이 자신의 해석이 의존하기에는 매우 빈약한 논거임을 인식한다. 그리고 포트로알 논리학의 위의 구절을 제외하면 그의 어느 곳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 빠리앙뜨는 이 구절과 함께 다음 구절을 자신의 논거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 삼는다. “모든 긍정명제의 본질은 주어는 술어와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 사물은 오직 자기 자신과 동일하며 그의 모든 다른 것과 구별된다.”¹¹⁾ 빠리앙뜨는 이 구절에서 표현된 “주어와 술어의 동일성”을 주어의 **내포**와 술어의 **내포**가 동일함을 말하고 있다고 해

7) 물론 전통 논리학에서 요소명제가 개별자들의 동일성으로 분석된다고 말하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익명의 논평자가 지적한 것처럼 『오르가논』의 <범주론>에서 정언명제는 실체-속성 관계의 표현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석론>이나 <분석론>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속성의 관계의 표현인 정언명제를 여전히 주어(실체)와 술어(그 속성을 지닌 개별자)의 동일성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8) 위의 책, 168쪽.

9) 위의 책, 171쪽.

10) 위의 책, 171쪽.

11) 위의 책, 167쪽.

석한다. 그러나 만약 빠리앙뜨의 이 해석이 옳다면 포르트로알 논리학은 모든 긍정명제를 동어반복으로 보고 있는 셈이 된다. 분명히 이 구절에 의해서 포르트로알의 저자들이 의미하는 것이 모든 참인 긍정명제는 단순한 동어반복이라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들은 “모든 사람은 사람이다”와 같은 동어반복인 명제를 대부분의 긍정명제와는 다른 무가치하고(worthless) 황당한(absurd) 서술로 설명한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계사가 주어와 술어를 동일하게 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명제의 의미론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빠리앙뜨는 먼저 긍정명제의 주어의 내포와 술어의 내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한다. 그는 “긍정명제의 술어는 그것의 모든 내포에 대해 긍정된다”는 포르트로알 논리학의 판단에 대한 두번째 공리를 주목함으로써 시작한다. 이 공리는 P라는 관념이 S라는 관념에 대해 긍정될 때마다 P의 내포에 포함되는 모든 성질들은 S에 대해 긍정됨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포르트로알의 저자들에 따르면 동어반복은 무가치하고 황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공리가 긍정명제의 계사는 주어의 내포와 술어의 내포가 완전하게 동일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빠리앙뜨는 그 저자들은 이 공리를 통해서 주어와 술어의 내포 사이의 부분적인 동일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즉 한 용어의 내포와 관련하여서 긍정명제의 계사는 주어의 내포는 술어의 내포를 포함함을 말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빠리앙뜨의 해석은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와 같은 필연적인 명제에 대해서만 옳다. 즉 술어의 내포에 속하는 성질들이 주어에 의해서 표현되는 대상들에 필연적으로 적용되는 명제에서, 그 명제의 계사는 술어의 내포가 주어의 내포에 포함됨을 주장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모든 긍정명제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고, 포르트로알 논리학도 모든 긍정명제의 계사를 그렇게 간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약간의 꿈은 하얗다”는 명제는 참이지만, 이 특칭명제의 계사가 “꿈”이라는 관념의 내포를 구성하는 성질에 “하얗다”는 성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꿈은 하얗다”라는 명제가 얻어질 터인데, 그 명제는 참이 아니다. 우리는 이 명제의 주어가 ‘꿈’이 아니라 ‘약간의 꿈’임에 주의해야 한다. 합성범주적 용어 ‘약간의’는 주어나 술어로 기능하는 범주적 용어와 결합하여 의미를 가지며, 합성범주적 용어가 범주적 용어와 결합할 때, 그 합성범주적 용어는 범주적 용어의 내포가 아니라 외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단어의 의미를 논할 때, 포르트로알 논리학은 종종 범주적 용어와 합성범주적 용어의 구별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관념을 내포와 외연으로 분석하는 것은 분명히

범주적 용어에만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약간의 꿈’의 내포는 ‘꿈’의 내포와 동일하다. 따라서 포트로알 논리학이 특칭긍정명제에서 술어의 내포는 항상 주어의 내포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어와 술어의 관계가 필연적이 아니고 단순히 우연적인 명제를 생각해 보자. 포트로알 논리학은 일반적으로 우연적인 성질을 “마음 속에서 한 사물의 관념을 파괴하지 않고 (...) 그 사물로부터 적어도 마음 속에서 분리될 수 있는 참된 양상”¹²⁾이라고 정의하면서 본질적 성질과 구별한다. 즉 우연적 성질이란 그 성질을 생각함없이도 그 사물을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예컨대 “최고의 선은 육체적 쾌락이라는 주장은 에피쿠르스에 의해서 전수되었다(The doctrine which places the highest good in bodily pleasure was taught by Epicurus)”는 명제에서 ‘에피쿠르스에 의해서 전수된(taught by Epicurus)’이라는 술어와 ‘최고의 선은 육체적 쾌락이라는 주장(The doctrine which ...)’이라는 주어 사이의 관계는 우연적이다. 포트로알 논리학이 우연적 일반화에 대한 분명한 예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인식한 것 같고, 그들의 주장에 따라 그러한 예를 구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컨대 “철수와 그의 3형제는 곱슬머리이다”는 명제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비록 “곱슬머리임”이 철수와 그의 형제들에게 우연적 성질일 뿐이지만 우리는 “철수의 모든 형제는 곱슬머리이다”는 명제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성질이 우연적일 뿐이라면 이 명제가 ‘곱슬머리임’이라는 술어의 내포가 ‘철수의 모든 형제들’이라는 주어의 내포의 일부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요약하면 포트로알 논리학을 특칭긍정명제에서 술어의 내포는 주어의 내포의 일부임을 말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즉 빠리앙뜨의 계사에 대한 “동일성 기호 해석”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주어와 술어의 동일성을 암시하는 듯한 앞에서 인용된 포트로알의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서, 긍정문의 계사는 그 명제의 주어와 술어의 외연 뿐만아니라 내포 사이의 동일성도 주장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포트로알의 저자들이 위 구절을 언급할 때, 관심을 갖은 것은 주어와 술어의 외연 사이의 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긍정명제에서 술어의 외연은 주어의 외연보다 넓다. 우리는 사자의 외연보다 동물의 외연이 더 크기 때문에 “모든 사자는 동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다. “모든 S는 P다”와 같은 형태의 명제는 일반적으로 “모든 S는 S인 P이다”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12) 위의 책, 61쪽.

서 “S”라는 관념의 모든 외연과 “P”라는 관념의 외연의 일부 사이에, 즉 ‘S’에 의해서 제한된 ‘P’의 외연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 이것은 긍정명제에서 술어는 내재적으로 ‘약간의’라는 양화사로 제한된다-부주연된다-는 것을 말한다. 빠리앙뜨도 이 점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동일성을 “색인화된 동일성(indexed identity)”라고 부른다.

그러나 특칭명제의 계사가 주어와 술어의 외연 사이의 색인화된 동일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옳지 않다. 왜냐하면 “약간의 S는 P다”라는 명제에서 양화사 ‘약간의’는 주어의 외연을 제한하여 주어의 외연 중에서 미확정적인 어떤 것임을 말하고 있고, 따라서 술어의 외연은 그 외연 자체에 의해서 미확정적인 어떤 것으로 제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리앙뜨는 “포트로알 논리학은 보편명제 뿐만아니라 특칭명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색인화(indexing)의 과정을 사용하고 있음에 분명하고, (...) 이러한 (술어에 의한 주어의 표시과정이 아니라) 주어에 의한 술어의 색인화 과정(procedure of indexing)에 의해서 우리는 계사가 두 관념의 외연을 동일시킬 수 있게 된다”¹³⁾고 결론 내린다.

이와 같은 특칭명제와 관련한 문제점 외에도, 표시된 동일성이 보편명제에 대해서 갖는 문제점도 있다. 빠리앙뜨의 해석에 따르면 “모든 S는 P다”라는 명제는 “모든 S는 S인 P다”를 의미하고, 거기에서 동일성의 관계는 명백하게 표준적인 동일성 관계(standard identity relation)이며, “색인화(indexing)”는 술어의 해석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매우 곤란한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모든 사자는 동물이다”는 명제와 “모든 곰은 동물이다”는 명제에서 술어 ‘동물’은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직관이 옳고 또한 빠리앙뜨의 설명대로 위의 명제들에서 계사가 표준적인 동일성 관계를 나타낸다면, 동일성의 이행성(transitivity)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사자는 곰이다”는 명제나 “모든 곰은 사자다”는 명제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빠리앙뜨의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이행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두 명제의 술어 ‘동물’이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즉 첫 번째 명제에서 ‘동물’은 ‘사자인 동물(animals which are lions)’을 의미하고 두 번째 명제에서 ‘동물’은 ‘곰인 동물(animals which are bears)’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술어는 주어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른 의미를 취하는 매우 애매한 용어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13) J. C. Pariente, *L'analyse du langage à Port-Royal* (Paris, 1978), 271쪽.

IV. 서술적 기능(predicative operator)으로서의 계사

그러면 긍정명제의 계사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포트로알 논리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인가? 포트로알의 저자들은 계사를 술어의 내포에 속한 성질들을 주어의 외연에 적용시키는 역할로 생각했다. 명제에서 주어와 술어의 역할은 각각 완전한 존재자(complete entities)와 불완전한 존재자(incomplete entities)를 이룸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대칭성이 바로 포트로알 논리학에서 판단함파와 생각함 사이의 경계를 그릴 수 있게 하고 명제의 결합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요소명제를 개별자의 이름과 개념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프레게의 견해와 유사하다.

포트로알의 저자들은 주어와 술어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주어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용어”이고 술어는 “긍정되거나 부정되는 용어”¹⁴⁾라고 말한다. 또 “책상이 있다(There is-)”나 “신은 존재한다(-exists)”와 같은 존재명제도 존재(being)라는 가장 일반적인 속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주어-술어 형태를 갖는다고 말한다. 즉 “-은 존재한다”는 명제는 “-은 하나의 존재이다(- is a being)”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분석에서 먼저 그들은 주로 단칭명제만을 다룬다. 단칭명제는 분명한 개별자를 지칭하려고 하는 고유명사나 한정기술구를 그 주어로 갖기 때문에 그 명제에서 주어와 술어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포트로알 논리학이 요소명제의 전형을 단칭명제에서 찾은 것은 아마도 존재와 양태 사이의 존재론적 구별을 반영하는 완전한 존재자와 불완전한 존재자 사이의 논리적 구별을 명백하게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단칭명제와 비교해 볼 때 다른 정언명제에서 주어와 술어를 구별하는 것은 보다 어려울 수 있다. “모든 논리학자는 합리적이다”와 같은 전칭명제와 “약간의 철학자는 감상적이다”와 같은 특칭명제에서 주어와 술어는 모두 일반명사이다. 즉 한 명제에서 주어가 다른 명제에서는 술어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포트로알의 저자들은 이러한 요소명제에서 주어의 역할과 술어의 역할의 차이를 설명하고 주어와 술어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를 제공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는 긍정명제에 대한 다음 두개의 공리로 표현된다.

공리 1: 긍정명제에서 주어의 모든 외연에 대해서 술어는 주어에 포함된다 (The attribute is put in the subject by an affirmative proposition according to the entire

14) *Logic*, 113쪽.

extension of the subject in the proposition). 즉 주어가 전칭이라면 술어는 그 주어의 모든 외연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생각되고, 주어가 특칭이라면 술어는 그 주어의 양화된 외연 모두에 대해서 적용된다.

공리 2: 긍정명제의 술어는 그것의 모든 내포에 대해서 긍정된다 (The attribute of an affirmative proposition is affirmed according to its entire comprehension).¹⁵⁾

첫번째 공리에서 볼 수 있듯이 주어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실이 긍정되어지는 개체나 개체의 집합을 명명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주어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의 외연이다. 주어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실이 긍정되거나 부정되는 개체 혹은 완전한 존재자를 의미하는 용어이고, 술어는 긍정되거나 부정되는 용어이다. 술어는 그것의 내포에 포함된 성질을 어떤 완전한 존재자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용어인 것이다. 결국 술어는 속성 혹은 불완전한 존재자를 의미한다는 이러한 설명은 술어에 대한 프레게의 개념표현(concept-expression)과 유사하다. 요컨대 긍정명제에서 주어는 그 주어의 외연에 대해서 긍정되고, 술어는 그 술어의 내포에 의해서 긍정된다는 것이다. 긍정명제에 관한 그 다음 공리들은 주어와 술어의 외연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공리 3: 긍정명제의 술어는 만약 그 술어의 외연이 주어의 외연보다 넓다면 그 술어의 모든 외연에 대해서 긍정되지 않는다 (The attribute of an affirmative proposition is not affirmed according to its entire extension if it is in itself greater than that of the subject).

공리 4: 술어의 외연은 주어의 외연에 의해서 제한되고, 따라서 술어는 주어에 적용되는 외연 일부만을 의미한다 (The extension of the attribute is restricted by that of the subject, such that it signifies no more than the part of its extension which applies to the subject).¹⁶⁾

이 공리들이 주어와 술어의 외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실제로 술어의 내포의 역할의 결과를 표현하고 있는 것에 다름아니다. 모든 일반명사는 일정한 성질을 지닌 개별자들을 의미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비록 술어의 논리적 기능이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어와 술어의 외연 사이의 관계의 결과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공리들은 환위(conversion)

15) 위의 책, 170쪽 (강조는 필자가 한 것임).

16) 위의 책, 170쪽.

의 규칙을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즉 위의 공리들은 주어와 술어의 외연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전통논리학의 주연관계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여 환위의 규칙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¹⁷⁾

명제의 계사를 주어와 술어의 동일성 기호가 아니라 주어의 외연을 술어의 내포에 적용시키는 서술적 기능으로 보는 해석은 포트로알의 종속절에 대한 분석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포트로알 논리학에서 종속절에 대한 언급은 복합명사(complex terms)를 논하는 곳에서 처음 발견된다. 복합명사는 한 명사에 다른 많은 명사를 결합하여 하나의 커다란 관념을 구성하는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긍정할 수 있다. 포트로알의 저자들은 복합명사는 종속절을 가지고 만들어질 수도 있고 종속절 없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그들은 관계대명사가 실제 문장에서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종속절이 없이 만들어진 복합명사도 관계대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문제는 ‘충직한 동물’이라는 표현을 할 때 <형용사+명사> 형식으로, 즉 ‘a faithful animal’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명사+관계대명사절>의 형식으로, 즉 ‘an animal which is faithful’이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제를 포함하는 절(propositional clause)과 복합관념을 의미하기만 하는 절(non-propositional clause)을 어떻게 구별하는가이다. 종속절을 포함하는 다음 두 명제를 비교해 보자.

- (1) 논리적인 사람은 자비롭다 (Men who are logical are charitable).
- (2) 사멸하는 사람은 신의 창조물이다 (Men who are mortal are God's creatures).

포트로알의 저자들은 (2)로부터 우리는 “모든 사람은 사멸한다(All men are mortal)”는 명제의 긍정을 추론할 수 있고 따라서 (2)의 종속절은 명제를 포함하는 절이지만, (1)로부터 우리는 “모든 사람은 논리적이다”나 “약간의 사람은 논리

17) 전통논리학(정확하게는 중세의 논리학)에 따르면, 어떤 정언명제의 주어 S는 그 명제가 모든 종류의 S에 대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다면 그리고 오직 그럴 경우에만 그 명제에서 S는 주연되고, 그 명제의 술어 P는 그 명제가 모든 종류의 P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면 그리고 오직 그럴 경우에만 주연된다. 그리고 전칭부정명제에서 주어와 술어는 모두 주연되고 특칭긍정명제에서는 주어와 술어가 모두 부주연되기 때문에 환위된 명제들은 서로 동치이다. 반면에 전칭긍정명제의 주어는 주연되지만 술어는 부주연되고, 특칭부정명제는 주어는 부주연되지만 술어가 주연되기 때문에 환위할 수 없다.

적이다”를 추론할 수 없고 따라서 (1)의 종속절은 단순히 하나의 복합관념만을 표현하고 있는 비명제적 절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종속절의 이러한 차이를 종속절의 제한적(restrictive) 기능과 비제한적(non-restrictive) 기능을 구별함으로써 설명한다. 명제 (2)의 종속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who)는 비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이 절의 ‘사멸하는’이라는 술어는 그 관계대명사의 선행사(men)에 부가되어도 그 선행사의 외연을 변화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제 (1)의 종속절의 ‘논리적’이라는 술어는 선행사에 부가되어 그 선행사의 외연을 제한하고, 이제 명제 (1)의 ‘사람’은 사람의 모든 외연을 말하고 있지 않게 된다. 따라서 명제 (1)의 관계대명사는 제한적이다. 즉 제한적인 종속절은 주어의 외연을 축소하고 비제한적인 종속절은 주어의 외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오직 비제한적인 종속절만이 명제를 포함하는 명제적 절이고 제한적인 종속절은 하나의 복합관념을 구성할 뿐인 비명제적 절이다. 즉 우리가 명제 (2)를 긍정할 때 우리는 이미 “모든 사람은 사멸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주장은 이미 이루어진 판단(명제)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포트로알의 저자들은 우리가 명제 (1)을 말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그리고 특정한 일부의 사람에 대해서도 그들이 논리적이라는 것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하나의 복합관념을 가질 뿐이라고 말하는 데, 그 경우 우리에게 어떠한 정신작용이 발생하는가? 그 저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정신작용은 언제나 능동적인데 이 경우에는 어떠한 능동적인 정신작용이 발생하는가?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경우에 우리는 “논리적”이라는 관념과 “사람”이라는 관념으로 구성된 복합관념을 형성하고, 이 두 관념이 모순적이지 않고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한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복합관념을 형성할 때 우리는 그 관념들의 내포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내포의 단계에서 우리의 정신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념의 외연에 속한 개별자들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즉 우리의 정신작용은 ‘사람’의 내포에 속한 속성들이 ‘논리적임’의 내포와 비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위해서 우리는 그 관념들의 내포만을 분석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판단함이라기보다는 생각함이다.

포트로알의 저자들은 이러한 견해를 전개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명제를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3) 거짓말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변호사는 존경받을 만하다.

(A lawyer who has never told a lie is worthy of respect.)

이 명제의 종속절은 제한적이고, 비명제적이다. 또한 (3)을 말함으로써 우리는 도대체 그렇게 완벽한 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변호사의 외연에 속하는 것 중에서 어떤 개별자가 “거짓말을 한번도 한 적이 없음”이라는 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긍정하지 않고도 (3)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3)이 (1)과 같이 제한적이며 비명제적인 종속절을 포함하고 있지만, (3)을 말할 때 우리는 (1)을 말할 때와 달리 두 관념(“변호사”와 “거짓말을 한번도 한 적이 없음”)의 양립가능성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포트로알의 저자들은 (3)과 같은 명제를 말할 때 갖는 복합관념은 관계대명사절의 술어와 선행사사이의 현실적인(actual) 적용이 아니라 가능성적(possible) 적용의 결과이고, 이러한 명제에서는 현실적 긍정이 아니라 암묵적(tacit)이며 가상적인(virtual) 긍정이 있다고 주장한다.¹⁸⁾ 이를 통해서 우리는 포트로알 논리학이 복합관념의 논리적 무모순성(consistency)을 인식하는 것과 가능성적 서술문(possible predication)을 인식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두 관념의 내포가 양립가능하지 결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의 복합관념을 가질 때 우리는 단순히 가상적 긍정을 하고 있는 것이며, 두 관념의 내포가 양립가능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면, 현실적 서술문(actual predication)은 그것의 술어의 내포를 주어의 외연과 관련시킨 결과인 것이다.

포트로알 논리학은 종속절을 명제적인 것과 비명제적인 것으로 구별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합관념과 판단을 구별하는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계사를 서술적 기능으로 해석하는 것이 포트로알 논리학에 대한 옳은 해석임을 보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포트로알 논리학은 생각함과 판단함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데카르트와는 다른 설명을 제시한다. 데카르트와 달리 포트로알의 저자들은 정신작용은 생각함에 있어서나 판단함에 있어서 모두 능동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정신작용의 차이는 사유의 내용에 있다. 실제적 판단(actual judgment)은 실제하는 개별자에 대해 그 개별자가 어떤 한 술어의 내포에 속한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인 반면, 생각함(conception) 혹은 가상적인 판단(virtual judgment)은 내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일 뿐이다. 즉 “사멸하는 사람”이라는 생각함이나 가상적 판단을 할 경우에 우리의 정신은 “사멸함”이라는 관념의 내포는 “사람”이라는 관념의 내포에 포함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우리의 이성 우리에게 “사람”의 외연에 속하는 개별자들은 “사멸함”의 내포에 속하는 속성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

18) 위의 책, 127쪽.

게 해준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함과 판단함을 구별하는 데는 존재적 취지(existential import)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다. 포트로알 논리학의 분석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서술문의 주어의 외연이 공집합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명제 (3)에서 우리가 그러한 변호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실제로는 그러한 변호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3)은 현실적 긍정일 수 없고 단지 가상적 긍정일 뿐이다. 포트로알 논리학에서 (3)과 같이 주어의 외연이 없는 명제에 대해서 조건적 해석, 즉 “모든 x에 대해서 그 x가 결코 거짓말한 적이 없는 변호사라면 x는 존경받을 만하다”는 해석의 여지가 없다. 포트로알 논리학은 명백하게 특정명제는 그에 대응하는 전칭명제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즉 “모든 S는 P다”로부터 “약간의 S는 P다” (“P인 S가 있다”)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3)과 같은 명제에 대하여 그 주어의 외연이 공집합일 수도 있다는 가정적 해석(hypothetical interpretation)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포트로알 논리학의 명제에 대한 설명은 그 저자들이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는 것 같다.

V. 맺음말

포트로알 논리학이 서술문의 계사를 주어와 술어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기호로 해석하게 하는 여지가 있는 진술을 포함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보다 정확한 해석은 주어와 술어 사이의 비대칭성에 주목하여 주어의 외연이 술어의 내포에 적용되게 하는 서술적 기능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고전적 형이상학의 실체(substance)와 양상(mode)의 구별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주어와 술어의 비대칭성은 또한 생각함과 판단함의 구별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단순히 생각할 때 우리의 정신은 관념의 내포에 대하여 작용하고, 판단할 때 우리의 정신은 한 관념(주어)의 외연에 다른 관념(술어)의 내포를 관련시키는 것이다.

필자는 정언명제에 대한 포트로알 논리학의 분석은 프레게의 요소명제에 대한 견해와 유사함을 역설했다. 프레게에 있어서 일단계 서술문(first-level predication)은 대상표현과 개념표현으로 이루어지고, 고유명사와 한정기술구만이 대상을 명명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희랍의 철학자이다”는 일단계 서술문이지만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그렇지 않다. 비록 양화사가 붙은 주어를 갖는 명제들이 서술적 표현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그 형태는 단칭명제의 형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단칭명제는 대상을 논항으로 취하는 개념이라는 일단계

함수(first-level function)를 포함하지만, 그외의 정언명제들은 일단계 함수를 논항으로 취하는 이단계 함수(second-level function)인 양화사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약간의 포도는 자주색이다[($\exists x$)($Gx \& Px$)]”는 명제에서 ‘약간의’라는 양화사는 ‘-포도이다’라는 개념표현을 논항으로 취하는 이단계 함수이다. 그러나 포트로알 논리학은 여전히 모든 요소명제를 주어-술어로 분석한다. 결국 포트로알 논리학이 계사를 주어와 술어의 외연과 내포 사이의 서술적 기능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계사를 동일성 기호로 이해하는 전통적인 견해에서 벗어나지만 여전히 포트로알 논리학은 고전적인 전통에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¹⁹⁾

19) 이 논문을 심사해주신 두 분의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를 드린다. 두 분의 심사평에 대해서 본 논문을 통해서 필자가 충분히 답변을 하지는 못했지만, 논제를 분명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히며, 아울러 보다 발전된 다음 논문을 약속드린다.

참 고 문 헌

- Arnauld, A. & P. Nicole, *The Art of Thinking* Trans. J. Dickoff & P. James (Indianapolis: Bobbs-Merrill, 1964).
- Bochenski, I. M. *A History of Formal Logic* Trans. & ed. by I. Thoma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61).
- Descarte, R. *Meditations on First Philosophy*. In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Descartes*, Trans. J. Cottingham, R. Stoothoff, & D. Murdoch (Cambridge, 1985).
- Finocchiaro, M. "The Port Royal Logic's Theory of Argument" in *Argumentation II: Across the Lines of Discipline: Proceedings of Conference on Argumentations* ed. by F. H. van Eemeren et. al.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7).
- Frege, G. "On Concept and Object" in *Translations from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Gottlob Frege*, eds P. Geach & M. Blac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 Hacking, I. *Why does Language Matter to Philosophy?* (Cambridge, 1975).
- Pariante, J. C. *L'analyse du langage à Port-Royal* (Paris, 1978).